



최근 미국과 중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변화와 시사점¹⁾

이 성 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leesk@keei.re.kr)

이 대 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dylee@keei.re.kr)

1. 머리말

2000년대 후반 이후 미국 내에서 에너지의 급격한 생산증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중동산 석유·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면서, 미국과 중동, 특히 사우디아의 외교적 관계에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중시 외교전략(Pivot to Asia)’을 천명하며 외교적 관심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사우디 역시 최근 이집트 혁명과 시리아 사태 등에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전략적 행동에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한 향후 중동 지역의 원유 수출이 미국보다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향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과 중동 간의 외교적 관계 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에너지자립 전망과 이것이 에너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동 지역의 에너지생산 전망과 향후 에너지 외교정책 변화에 대해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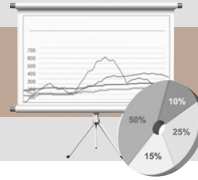
펴보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의 석유·가스생산 전망과 에너지·외교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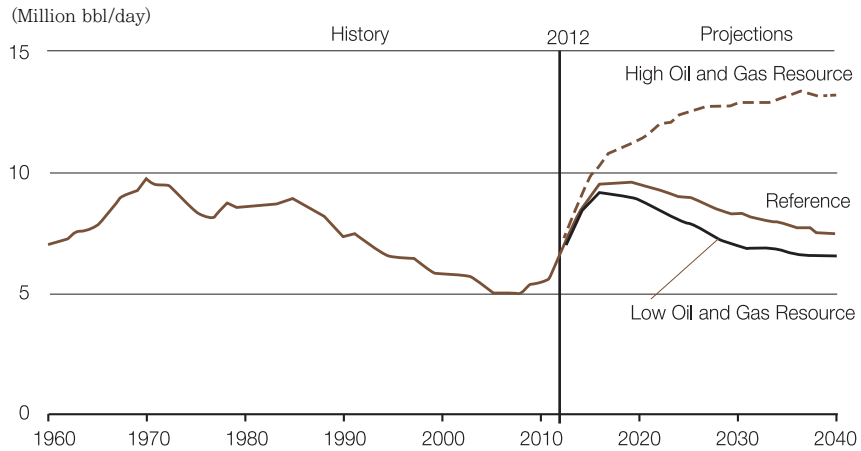
가. 미국의 석유·가스생산 현황 및 전망

세일 혁명으로 미국의 에너지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미국 내 원유생산 증가와 석유소비 감소 추세로 인해 중동원유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IA의 전망에 의하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2년에 649만 b/d에서 2020년에 955만(기준 전망치)~1,141만 b/d(낙관적 전망치)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 830만~1,285만b/d, 2040년에 748만~1,322만b/d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원유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석유소비는 자동차 연비 개선, 휘발유세 인상, 천연가스 차량 및 전기차 보급 정책 등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

1) 본고는 이성규 외, “미국 에너지자립 전망과 미국과 중동의 에너지·외교정책 변화,”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20호, 에너지경제연구원(2014.6.6)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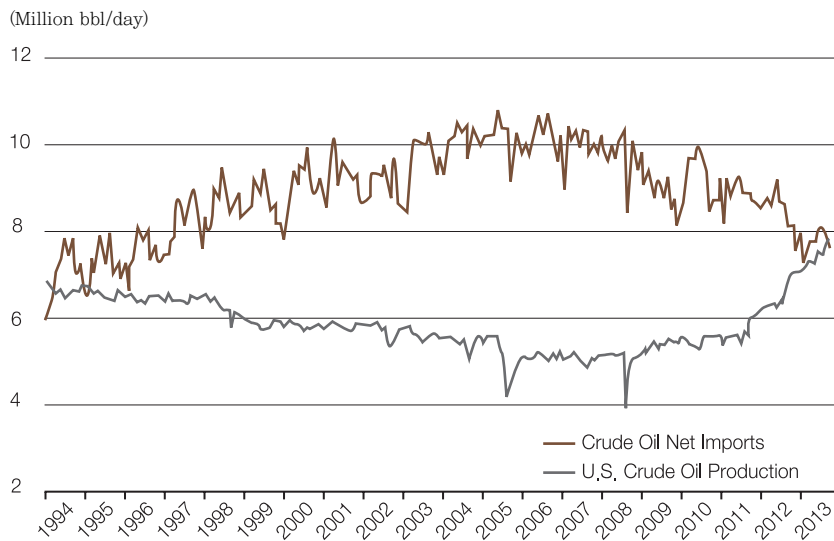


[그림 1] 미국의 원유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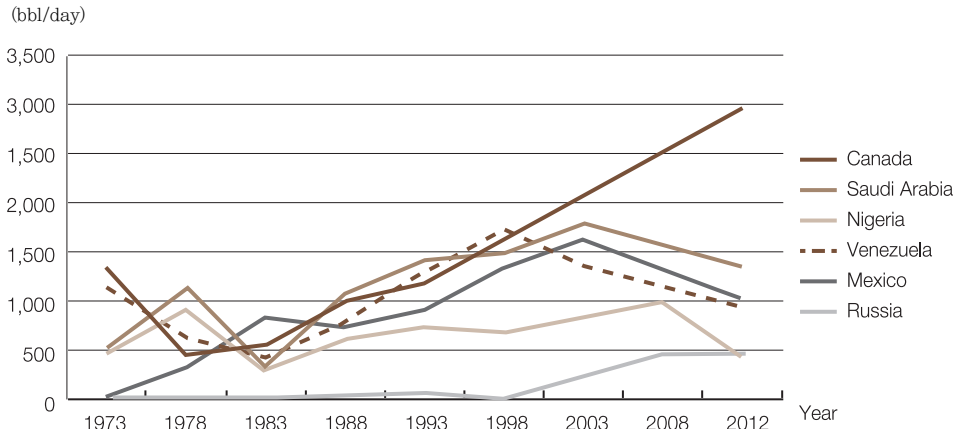
자료: EIA(2014)

[그림 2] 미국의 원유 생산량과 순수입량 변화 추이



자료: EIA(2014)

[그림 3] 미국의 상위 원유·석유제품 수입국(1973~2012년)



자료: EIA(2014)

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원유 순수입량은 2005년 1,239만b/d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 791만b/d까지 감소하였다. 2012년 총 원유 수입량은 1,059만b/d이며, 국가별 수입 비중은 캐나다 27.9%(295만b/d), 중동지역 20.4%(216만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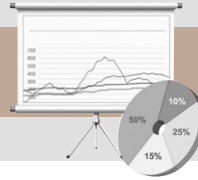
중남미 18.7%(198만b/d), 멕시코 9.7%(103만b/d)이다. 원유수출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원유 순수입량 감소의 영향은 석유제품의 해외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석유제품 수출량은 2005년 100만b/d에서 2011년 300만b/d로 급증했다.

〈표 1〉 미국과 중국의 중동 원유·석유제품 의존도

(단위: %)

연도	미국의 원유·석유제품 수입량/총 소비		중국의 원유·석유제품 수입량/총 소비	
	해외 전체	중동	해외 전체	중동
2000	52.9	14.0	33.7	-
2005	60.3	14.0	43.9	-
2010	49.2	11.9	58.6	14.8
2011	44.8	11.8	60.9	22.9

자료: EIA(2014); 중국 국가통계청



나. 석유·가스수입 감소에 따른 경제적·외교적 효과

미국의 석유·가스생산 증대에 따른 해외 수입 감소와 수출은 미국은 물론 주요 에너지 수입국의 경제·외교부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에는 에너지 지출비용 감소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향상 및 가계 실질소득 증대, 재정수지 및 무역수지 개선, 고용창출, 석탄소비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외교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증대와 전략적 비축유 활용을 통해 산유국(이란, 러시아 등)에 대한 경제제재 효과 극대화, 에너지 자원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 수입국(특히 미국의 동맹국)에도 가스 가격의 유가연동 결정방식 개선, 아시아 가스가격 프리미엄 문제해결,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국(미국) 확보, 중동에너지 의존도 감소, 국제유가 안정, 석탄에서 가스로의 원활한 대체 및 기후변화 대처 능력 증대, 기존 전통가스 수출국(카타르, 러시아, 이란 등)과의 계약체결 시 협상력 제고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미국의 에너지·외교정책 변화

1) 오바마 정부의 대중동 외교정책의 중요성

오바마 정부는 집권 1기에 부시 정권의 단독행동주의(unilateralism)와 선제공격론에서 다원주의와 이슬람 세계와의 대화전략으로 외교정책을 변화시켰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였고 아시아 중시 외교전략(Pivot to Asia)을 추진하였다.²⁾ 중동지역에서 직접적이고 대규모의 군사행동을 배제하고 가능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되,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입만 하였다. 또한 이러한 외교정책의 변화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³⁾

그러나 2013년 집권 2기를 맞은 오바마 정부는 2011년 아랍의 봄과 시리아 사태의 장기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와 이후 핵협상 추진, 이집트 혁명 이후 군사정권 복귀, 그리고 이라크 내정 불안정 지속 등으로 외교전략의 중심을 다시 중동지역으로 옮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 9월 오바마 대통령은 UN 총회연설에서 남은 임기 동안 이란 핵문제와 아랍-이스라엘 분쟁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4년 3월 말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집권 이후 5년 만에 사우디를 방문하여 그동안 시리아, 이란, 이집트 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양국 관계를 회복시키려 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에너지수입을 줄인다고 해도 중동지역은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중심에 있을 것이며, 중동지역에 대한 외교적 관여도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

2)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증산에 따른 중동 에너지 의존도 감소로 기존의 중동에 대한 '사활적 개입'에서 '선택적 개입'으로 미국의 대중동 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이재승, 2014).

3)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안전한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게 되는 것임. 이는 동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이 크게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맹국인 일본에게도 안보상의 위협이 될 것임.



고 있다.⁴⁾ 중동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자유로운 교역 보장, 이스라엘 안전보장, 중동 지역 내 핵확산 방지, 이슬람 과격주의자의 테러 대응 등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서 향후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미국은 사우디아와의 협력관계 유지가 이스라엘 안전보장에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동지역은 미국의 최대 무기 수출시장이다. 특히 사우디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미-사우디 관계가 악화되어 사우디가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고 다른 통화를 매입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사우디아와의 일정한 협력관계 유지는 불가피하다. 사우디는 항상 충분한 잉여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국제유가 불안 시에 완충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동의존도 감소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중동지역의 민주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사우디 정치의 민주화 움직임을 자극하여 사우디 왕정과 마찰을 빚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사우디 왕정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얻게 되는 전략적·경제적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사우디 왕정을 크게 압박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이 크게 줄어 그 힘의 공백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채우게 된다. 이는 미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현

재 중동지역 내 여러 가지 사태 해결을 빌미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을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중동 석유의존도가 계속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중국이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면,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도 부정적일 것이다. 물론 중국과 중동 간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중국이 중동지역에서 미국을 대신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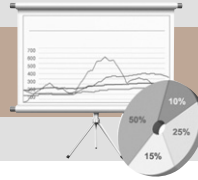
2) 미국의 대중동 외교정책 변화의 영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공급되는 중동 석유 물량이 크게 줄기 때문에, 국민들과 정책결정권자들이 느끼는 중동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은 예전처럼 높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동지역의 정세안정과 해상 수송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감소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⁵⁾

미국 대외 에너지정책의 중심은 원유 수입국의 정세안정과 해상수송 안보에서 자국 에너지생산과 소비, 그리고 수출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 관련 외교정책에서는 원유가격과 자유로운 교역이 더 중시될 것이다. 과거 미국의 대중동 전략의 목표는 크게 중동 석유·가스의 안정적 수입, 이스라엘의 안전보장 확보, 에너지수급 안정을 통한 서방 동맹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 이란 등 적대국 및 테러리스트에 의한

4) 실제로 미국의 사우디산 원유 수입량의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미국 내에서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유종은 경질유인데 반해 사우디산 원유는 중질유이며, 현재 미국 내 정제시설 중 많은 시설이 중질유를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임. 반면, 나이지리아산 경질유의 미국 수입량은 급감하여 현재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5) 현재 미국 내에서는 중동지역 여러 사태에 대한 무력개입에 대한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조치로 무력사용 대신 국제적 관리를 주장한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이러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측면도 있음.



위협 해소 등에 있었다. 이들 4가지 목표 중에서 첫 번째는 세일혁명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목표는 글로벌 패권유지와 국익 차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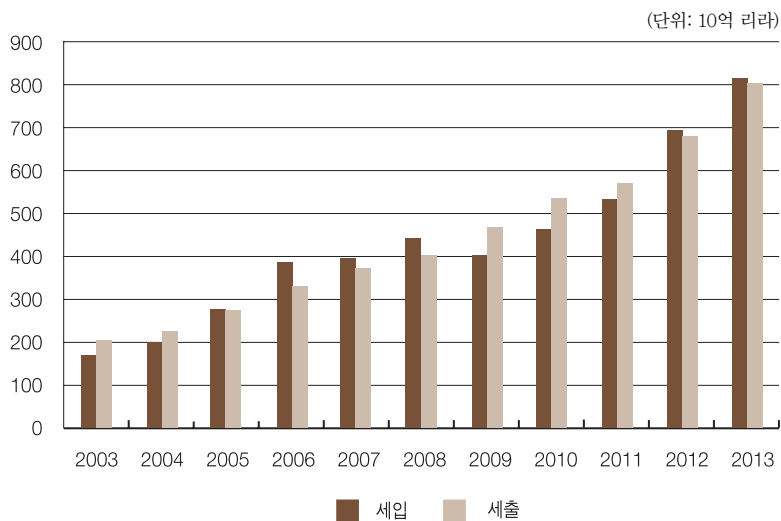
그리고 미국은 특정 산유국에 대한 경제제재(핵무기 철폐를 위한 이란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조치), 또는 이들 국가의 에너지공급 중단 위협(우크라이나 크림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의 풍부한 세일자원 및 생산 증가, 그리고 전략적 비축유 활용은 산유국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고, 산유국의 에너지공급 중단 위협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만약 대규모 에너지 수입국들이 적정수준의 가격으로 대체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규모 전략

적 비축유 방출 또는 방출계획 발표는 공급교란 위협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실제 이란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조치 이후 국제유가 상승압력을 해소시키는데 있어서 사우디와 이라크의 원유 증산 못지않게 미국 정부의 비축유 방출 시사발언도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대로 1990~2000년에 미국은 자국의 거대한 석유수입 시장을 OPEC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했었는데, 앞으로 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IEA는 2035년에 중동 원유의 약 90%가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지역으로 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중동 원유 수출구조의 커다란 변화도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중동지역 및 에너지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림 4] 사우디의 세수 및 세출 변화 추이



자료: SAMA, Annual Statistics(2014)



3. 중동의 석유·가스수급 전망과 에너지·외교정책 변화

가. 중동의 석유·가스수급 현황 및 전망

중동지역 국가들의 에너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중동지역의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5%씩 증가했다. 사우디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6위의 석유 소비국이지만, 1인당 소비는 미국의 1.6배, 일본의 2.8배에 이른다. 사우디의 석유소비(300만b/d)는 이미 인도 수준(360만b/d)에 육박하고 있다. UAE는 세계 7위 가스 매장국이지만 이미 가스 순수입국으로 전락했고(2012년 생산 51.7Bcm, 소비 62.9Bcm), 쿠웨이트는 여름기간 동안만 LNG를 수입했는데 최근에는 연중 가스를 수입(2012년 생산 14.5Bcm, 소비 17.2Bcm)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우디 투자회사 Jadwa Investment 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의 석유소비량은 2030년에 650만b/d로 증가하고, 원유 수출량은 490만b/d(2005년 750만b/d)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Jadwa Investment는 사우디가 빠르면 2014년에 재정적자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사우디는 석유가격을 인상하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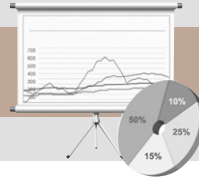
낮은 에너지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에너지 과소비 성향과 여름철 에어컨 보급 확대 및 물 사용 증가(해수 담수화를 위한 전력사용)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인구 증가 등이 에너지소비 급증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다른 측면으로 아랍의 봄 이후에 중동국가들은 정국 안정과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충분한 양의 전력과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계속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국민들의 에너지 과소비 성향을 지속시킬 것이다.

중동국가들은 에너지 과소비 및 빠른 소비 증가세에 따른 석유·가스수출 여력 감소, 재정수지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효율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 재생에너지 개발, 원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커다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석유·가스 수출에 따른 외화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유가 상황의 유지와 안정적 수출 증대를 위해 아시아지역 내 대규모 석유·가스 수입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사우디의 주요 석유 수출국은 미국과 일본인데, 미국의 수입은 감소하고 일본의 수입은 정제되어 있다. 반면 중국의 사우디 석유수입은 증대하고 있어 수년 내에 중국이 사우디의 최대 석유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중동의 에너지·외교정책 변화

미국의 중동 원유의존도 감소와 오바마 정부의 대중동 외교정책 변화 움직임으로 중동국가들의 대외전략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적으로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와 시리아는 지금까지 내정 불안 사태에 있으며, 이란과 서방국가 간 협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라크 국내 사정도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오랫동안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어 온 사우디 왕정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중동지역 내 여러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⁶⁾ 여기에 세일 혁명이 일어나고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전략이 나오면서, 사우디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전략



에서 외교 다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국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계속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사우디의 기본적인 외교전략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방대한 석유자원을 배경으로 한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석유 공급국으로서의 지위 유지, 이슬람 지역에서 맹주로서의 역할 수행 등에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국과 사우디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감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이란 이슬람 혁명, 메카사원 점거 사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란-이라크 전쟁,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걸프 전쟁 등은 미국-사우디 관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에 대한 위화감을 불러 일으키고,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제공하는 데 일조했다. 사우디 내에서 미국이 중동지역 사정을 고려치 않고 이라크에 시아파 정권을 출범시킨 과오를 범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⁷⁾ 그리고 친미·사우디 성향의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이 2011년 2월 이집트 혁명으로 퇴진하고, 뒤를 이어 이슬람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도 미국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미국-사우디 관계가 표면

적으로 경직되기 시작했다.⁸⁾ 반면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사건으로 사우디와 이슬람 과격단체 간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미국 내에서도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국가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었다.

사우디 왕정의 유지 기반은 석유수출을 통한 막대한 외화수익과 미국의 군사적 안전보장에 있다. 미국의 사우디 석유수입 감소에 대해 사우디는 중국, 인도, 그리고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정유, 석유화학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대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란의 핵위협과 이슬람 세력의 무장반란으로부터 사우디 왕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에 없다고 사우디 지도층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도 사우디와 비슷한 사정이다. 사우디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대가로 안정적 원유공급과 미국 국채 매입으로 협력(안전보장-원유·자금)하고 있다. 사우디 주변에는 중동지역에서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란과 이라크가 존재한다. 현재 이라크의 위협은 약하지만 여전히 사우디 왕정을 위협할 수 있다. 사우디와 이란은 종교적·민족적으로 크게 상이해서 오랫동안 대립·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사우디는 이란의 핵보유를 매우 중대한 국가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6) 사우디의 정부 고위 관리는 최근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함. 사우디는 미국이 이집트 혁명 시 무바라크 대통령을 지원하지 않은 것, 2013년 9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시리아에 무력공격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2013년 11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음.

7)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사우디의 반대를 무시하고 행해진 것으로 알려지며, 이라크에서 시아파 이슬람 정권이 탄생하는 결과를 낳았음. 이란은 이라크 시아파 정권과 시리아 시아파 정부를 지원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이란은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음.

8) 사우디는 그동안 아랍의 맹주인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 이는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의 안전보장과 영향력 강화에 기여했음. 사우디는 이집트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기반으로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또한 이란과 이라크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음. 또한 무바라크 정권이 친미/친서방 노선을 취한 것도 협력을 용이하게 했음.

9) 사우디 왕정은 군부에 의한 쿠데타를 크게 경계하여 강한 군대를 갖지 않으려 했고, 단지 국가경비대만 두고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대중동 정책이 사우디가 원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며, 사우디 왕정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우디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중동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서방 강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3월 사우디 국왕은 중국, 파키스탄, 일본, 인도 등을 순방했다. 사우디는 파키스탄과 오랜 우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많은 근로자들이 사우디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다. 압둘라 국왕은 즉위 직후 첫 해외순방지로 2006년 1월 중국과 인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는 사우디가 이때부터 아시아 지역 내 대규모 원유 수입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현재 사우디 왕족 내에서 정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우디 왕정 내에서도 독자적이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국왕이나 황태자를 포함한 사우디의 왕정 지도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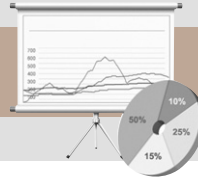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중동지역의 중요성은 향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동 석유·가스의 중요성이 크게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외교전략에서 중동지역의 전략적 가치까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중동지역의 혼

란은 글로벌 시장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대중동 개입 축소는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동북아 3국, 그리고 러시아에게 중동 국가와 외교·경제·에너지 측면에서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들도 대미 의존도를 낮추면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 중동의 국가 및 국영에너지기업은 그동안 메이저 기업만 협력 해왔던 비즈니스 전략을 수정하여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기업과 에너지 상·하류부문에서 협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에너지자립도가 크게 개선된다고 해서 미국이 글로벌 에너지위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향후에도 가격불안정, 중동지역 정세 불안, 환경오염 등 3가지 위험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이 수급 안정에서 점차 글로벌 환경문제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 노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중동지역 및 해상수송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미국이 향후 아시아 국가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내에서 그동안 무임승차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재정부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적으로 크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비FTA 체결국인 일본과 인도에 대한 LNG 수출 허용 및 증대를 대가로 중동지역 정책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Bruce Jones, "Despite Growing Energy Independence, U.S. Cannot Escape Global Risks," BROOKINGS, Planet Policy, May 27, 2014
- _____, David Steven, and Emily O'Brien, "Fueling a New Order? The New Geopolitical and Security Consequences of Energy," BROOKINGS, March, 2014
- Bruce Riedel, "The Saudi pivot to Asia," Al-Monitor, March 13, 2014.
- Charles K. Ebinger and Govinda Avasarala, "Five major Energy Problems the Next President Has to Face," BROOKINGS, June 11, 2012
- David L. Goldwyn, "Making an Energy Boom Work for the US," The New York Times, Nov. 12, 2012
- EIA,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2014
- Erica S. Downs, "China-Middle East Energy Relations," BROOKINGS, June 6, 2013
- _____, "Implications of the U.S. Shale Energy Revolution for China," BROOKINGS, Nov. 8, 2013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2012
- _____, World Energy Outlook 2013, 2013
- Kevin Massy, "Through the Lookign Glass: U.S. Energy Exports to the Middle East?" BROOKINGS, Opinion, Dec. 20, 2012
- SAMA, Annual Statistics, June 12, 2014
- Songying Fang, Amy Myers Jaffe, and Ted Loch-Temzelides, "New Alignments? The Geopolitics of Gas and Oil Cartels and the Changing Middle East," Economics of Energy & Environmental Policy, Vol.3, No.1, 2014
- Suzanne Maloney, "Expanding U.S. Energy Supplies: The Not-So-Secret Weapon in Iran Sanctions Success," BROOKINGS, March 7, 2014
- www.eia.gov/
- www.stats.gov.cn/(중국 국가통계국)